

<http://dx.doi.org/10.17703/JCCT.2015.1.4.19>

JCCT 2015-11-3

## 피임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Influencing Factors on Knowledge of Contraception

이경란\*, 김정애\*\*

Gyeong ran Lee\*, Jung Ae Kim\*\*

**요약** 본 연구는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학 1학년생 139명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정도, 성관련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과 피임지식간의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피어슨 상관관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피임지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성교육 유무, 성별,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교육과 피임 지식간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한 달 용돈과 성교육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부모님과 친밀도가 전공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성인으로 인정되는 대학 신입생들의 올바른 성문화를 위해서는 피임에 지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성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과 한 달 용돈 수준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대학 1학년생, 피임 지식, 성적 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on knowledge of contraception with University freshmen. The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and we selected 139 University freshmen through randomize sampling. The method of study was frequency, chi-square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al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exual related characteristics were sexual education, sex, allowed money in order and there were correlation between sexual education and knowledge of contraception, allowed money and sexual education, and parents and major satisfac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set up the right sexual culture, right information about sexual information to University freshmen and there are needed tailed sexu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with sex and allowed money.

**Keywords** : University freshm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sexual behavio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성 행태 또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1][2]</sup> 특히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신체적 및 경제적 발달과 함께 성행동의 양

상은 더욱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3][4]</sup> 예를 들면 20세기 중반 이전에 표출되었던 성 행태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4년 Chae와 Jung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대학생 1,099명 중 남학생의 75.9%, 여학생의 30.7%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sup>[6]</sup> 우리나라도 세계적 변화와 더불어 최근 성성행위에 관한 관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희원,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제1저자)

\*\*정희원,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5년 4월 8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0월 17일

Received: 8 April 2015 / Revised: 22 August 2015

Accepted: 17 Octo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lgr66@csj.ac.kr

Dept.: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Korea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성취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대학생이 되면 성적 성숙도의 가속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sup>[7][8]</sup>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지역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나 자취생활을 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율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성관련 의논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즉 신체적·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성(sex)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나<sup>[9]</sup> 그들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이에 합당한 성관련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성 경험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날 것이 예측된다. 2002년 M.S. Park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28.4%가 성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5.5%가 성병경험이 있었고, 임신 및 유산의 경험도 18.7%나 된다고 보고하였다.<sup>[10]</sup> 또한 2009년 MOHW 발표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인공 임신중절 건수가 총 인공 임신중절 건수의 42%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여학생의 임신 중절률은 29.8(1,000당)로 미국 21.1 캐나다 14.9, 일본 13.4보다 매우 높게 보고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대학생의 성경험은 성경험 자체를 부정하던 이전의 성교육이 이제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세대로 바뀌었으며, 성경험에 따른 성병 경험의 발생은 책임 있는 성경험을 하여야 하는 측면의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2011년 G.R. Shin의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의 성병 경험이 2.5%, 여학생이 4.9%를 보고하고 있어서<sup>[12]</sup> 성경험으로 인한 여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더 이상 성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감추기 보다는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교육을 위한 성관련 지식 중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한 피임 지식은 대상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2011년 G.R. Shin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성교육 내용이 피임법(41.4%)이었다고 한다.<sup>[12]</sup>

최근 대학생들의 피임 실천률은 57.9%였으며,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콘돔이었다.<sup>[12]</sup> 그러나 이는 성경험을 하는 대학생 중 아직 42.1%가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성경험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포함한 성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피임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요인이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며 성관련 요인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인으로서 시작시기인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임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행태와 어떤 관련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 및 피임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이 피임지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피임관련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 신입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②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수준을 분석한다.
- ③ 일반적 특성과 피임지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④ 피임지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즉 일반적 특성, 성관련 특성 및, 성행태 특성을 조사하여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피임지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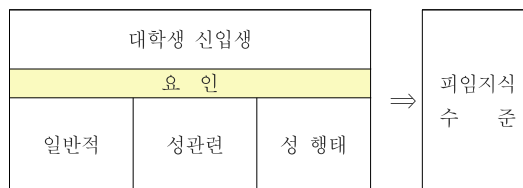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디자인

Figure 1. research design

###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A시에 소재한 C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39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 까지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로 계산하였을 때 134명이 산출되었다. 이 중 10% 탈락률을 고려하면 148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48명을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자와 자료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9명을 제외한 13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므로 표본수가 적당히 확보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인당 설문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대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 질문지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 3. 연구도구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피임지식 관련 기존 논문(1,2,3,4,6,7)을 통합 분석하여서, 간호대학 교수 3인의 의견을 수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거주형태, 부모님과의 친밀도,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 출생순위를 포함하였고, 성관련 특성으로는 성교육 유무, 성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성관련 문제 상담 대상을 포함하였고, 2000년에 김미중이 개발한<sup>[13]</sup>이 개발한 피임지식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맞으면 1점, ‘모르겠다’와 틀리면 0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지식 수준이 높으며 낮을수록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원 연구<sup>[13]</sup>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6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19$ 이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식수준 정도는 카이제곱분석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지식수준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피임지식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6명(25.9%), 여자가 103명(74.1%)으로 여자가 67명(34.95%) 더 많았다. 연령은 20세가 131명(94.2%), 21세 이상이 8명(5.8%)으로 대학 신입생의 적정 나이로 대상자가 선택되었다. 종교는 개신교가 18명(12.9%), 가톨릭이 32명(23.0%), 불교가 9명(6.5%), 종교가 없는 학생이 79명(56.8%)으로 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가톨릭, 개신교, 불교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19.4%가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72.7%이었고 자취하는 학생들은 7.9%이었다. 출신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77.0%로 가장 많았고, 실업고가 20.1%, 직업고등학교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은 ‘5만원 이하’가 7명(5.0%), ‘6-10만원’이 9(6.5%), ‘11-15만원’이 21(15.1%), ‘16-20만원’이 23(16.5%), ‘20만원 이상’이 79명(56.8%)로 나타나서 한 달에 21만원이 이상을 쓰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친밀도는 ‘매우 좋다’가 95명(68.3%), ‘보통이다’가 41명(29.5%), ‘나쁘다’가 3(2.2%)로 친밀도가 ‘매우 좋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90명(64.7%), ‘보통이다’가 35명(25.2%), ‘불만족한다’가 9명(6.5%), ‘나쁘지 않다’가 5명(3.6%) 순으로 나타났다.

### 2. 개인적 특성과 피임지식과의 관련성

개인적 특성과 피임지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하였다(Table 2).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종교, 거주형태, 출신고교, 흡연 유무,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 전공만족도, 부모님과의 친밀도를 분석에 포함하였고, 성관련 특성으로는 성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성교육 유무, 성관련 상담 대상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피임지

식과 관련된 있는 것은 ‘성별(p=.002)’로 나타났으며, 성 관련 특성 중 피임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성교육 유무(p=.042)’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 3. 개인적 특성과 피임지식과의 관련성

개인적 특성과 피임지식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Table 3).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교육 유무, 흡연 유무,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 수준, 거주 형태, 부모님과의 친밀도, 전공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성교육 유무와 한 달 용돈과 피임지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p<.05), 흡연 유무와 피임 지식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부모님 친밀도와 전공 만족도에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 4. 피임 지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적 특성이 피임 지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요인인 성별, 성교육 유무, 한 달에 쓰는 용돈을 가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4).

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공차 한계값이 0.001 이상이었고, VIF 값이 10.0 이하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 모형1의 설명력은 6.8%, 모형 2의 설명력은 7.1%, 모형3의 설명력은 10.1%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도 2.281로 나타나서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분산분석 결과 모형 1,2,3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 회귀식이 적합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친 변수들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p=.002)이었고, 그 다음은 성교육 유무(p=.002), 한 달 용돈 수준 순이었다(p=.002).

## IV. 결론

본 연구는 생리적·사회적 성인으로 인정되는 대학생 신입생들의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대학 신입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과 피임지식간의 관계 및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상자들은 성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다는 것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교에서 체계화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익명으로 성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성관련 상담은 친구가 가장 많다고 응답을 하여서 아직도 대학생들은 성관련 문제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sup>15)</sup>

둘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피임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성별, 성교육 유무,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이었다. 남학생들이 성경험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피임지식은 여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M.S, Choi, N.S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up>[7][8]</sup> 이는 대학교 이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결과, 여학생보다는 적극적인 남학생의 성(sex)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는 대학 환경에서 대중매체가 외모를 비롯한 성 유희적 관점에 치우친 상태로 성경험을 신중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성교육 유무는 피임지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P, Chae, M.C, Jung과 M.S, Choi, N.S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up>[3][7]</sup> 이는 성에 대한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현실적이고 쉽게 수용가능한 성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성교육은 피임지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산률과 성병 감염율의 증가는 아직까지 대상자들이 쉽게 수용가능한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이 20 만원이상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용돈의 수준이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E.M, Kim, S.J, Yu, M.R과 M.S, Park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sup>[3][7]</sup>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에 대한 연구를 한 J.A, Kim의 연구에서 용돈이 많을수록 성경험에 대한 기회가 많다는 결과와 동일하다.<sup>[16]</sup>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경제적 관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대중매

체 등을 통하여 이성교제에 있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물질적으로 과대하게 포장되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일역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미래의 예비 부모가 될 대학생들은 물질적인 면보다는 자아정체성과 맞는 이성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책임 있는 이성교제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이 성경험과 피임지식에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A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특정 한 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 학과는 여학생이 많은 학과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경험과 피임지식에 관한 설문으로 본 설문에서 결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상 한계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익명화한 컴퓨터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5]</sup>

넷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대학 신입생들의 성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피임지식에 관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하고 개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성별에 따라서 각각의 호기심과 지식수준이 다르므로 피임지식에 관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3. 건전한 이성교제에 있어서 용돈의 바람직한 관리에 관한 전문가와의 개방적인 논의가 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Bailey J, Mann S, Wayal S, Hunter R, Free C, Abraham C, Murray E. Sexual health promotion for young people delivered via digital media: a scoping review. Public Health Research. Southampton (UK): NIHR Journals Library; 2015 Nov.
- [2] Landor AM, Halpern CT. Prevalence of High-Risk Sexual Behaviors Among Monoracial and Multiracial Groups from a National Sample: Are Multiracial Young Adults at Greater Risk? Arch Sex Behav. 2015 Nov 19.
- [3] P, Chae. M.C, Jung. A study about the sexual attitudes and victimization of Korea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lath Psychology, Vol. 9(4), 869-886. 2004.
- [4] M.S, Go. J.W, Seok.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of Female Students as related to Sexual Characteristics. Journal Korean Acad Child Helath Burs. Vol. 17(3), 153-160. 2011.
- [5] Ministry of Health Welfare. A plan on prevention of illegal artificial abortion. Retrieved Febury 25, 2010. <http://www.mw.go.kr/front/index.jsp>
- [6] P, Chae. M.C, Jung. A study about the sexual attitude and victimization of Korea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869-886. 2004
- [7] M.S, Choi, N.S, Ha.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10(4), 318-330. 2004.
- [8] Y.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and Safer Sexual Behavior in the 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1), 356-366. 2014.
- [9] E.M, Kim, S.J, Yu, M.R, Song.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1), 18-26. 2013.
- [10] M.S, Park. A comparative analysis of

-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toward sex and needs about sex educ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Pusan. 2002.
- [11] Ministry of Health Welfare. A plan on prevention of illegal artificial abortion. Retrieved February 25, 2010. <http://www.mw.go.kr/front/index.jsp>
- [12] G.R, Shin. Survey for College students' Sexual Attitude, Korean Health Promotion Development Study, Vol, 2011(3), 1–102. 2011.
- [13] M.J, Kim.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nosei University. Seoul. 2000.
- [14] H.S, Lee.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in sex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of one women's college. J Korean Acad Society Burs Educ, 8(1), 131–144.
- [15] Bailey J, Mann S, Wayal S, Hunter R, Free C, Abraham C, Murray E. Sexual health promotion for young people delivered via digital media: a scoping review. Southampton (UK): NIHR Journals Library; Public Health Research. 2015 Nov.
- [16] J.A, Kim. Analysis of sexual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 No. 1, pp.15–26, Feb. 28, 2015.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	Variables		%
Sex	Male	36(25.9)	Parent's intimacy	Positive	95(68.3)
	Female	103(74.1)		Middle	41(29.5)
Age	20 years old	131(94.2)	Satisfaction Major	Bad	3(2.2)
	Over 21 years old	8(5.8)		Positive	90(64.7)
				Negative	9(6.5)
Religion	Protestantism	18(12.9)	Born order	Middle	35(25.2)
	Catholic	32(23.0)		Not bad	5(3.6)
	Buddism	9(6.5)		1st	64(46.0)
	None	79(56.8)		Middle	12(8.6)
	Etc	1(0.7)		The last	55(39.6)
Hosing	Commuted	27(19.4)	Getting Sexual information	Only child	8(5.8)
	Dormitory	101(72.7)		Internet	69(49.6)
	Board oneself	11(7.9)		Friend	50(36.0)
				Brother/sister	1(0.7)
Graduated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107(77.0)	Sexual counseling	Counseling center	17(12.2)
	Industrial high school	28(20.1)		Professor	1(0.7)
	Vocational school	2(1.4)		Friend	105(75.5)
	Etc	2(1.4)		Brother/sister	9(6.5)
				Parents	19(13.7)
Allowed money (won)	Less 50.000	7(5.0)	Sexual education	Professor	1(0.7)
	60.000–100.000	9(6.5)		Counseling center	4(2.9)
	110.000–150.000	21(15.1)		Taken	121(87.1)
	160.000–200.000	23(16.5)		Not taken	18(12.9)
	over 210.000	79(56.8)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정도

Table 2. Knowledge of contraceptiv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of contraceptive		$\chi^2$ (p)
		Low	High	
Sex	Male	22(61.1)	12(38.9)	.002**
	Female	33(32.0)	70(68.0)	
Age	20 years old	52(39.7)	79(60.3)	.606
	Over 21 years old	3(37.5)	5(62.5)	
Religion	Protestantism	7(38.9)	11(61.1)	.785
	Catholic	15(46.9)	17(53.1)	
	Buddism	4(44.4)	5(55.6)	
	None	29(36.7)	50(63.3)	
	Etc	0(0)	1(100.0)	
Hosing	Commuted	13(48.1)	14(51.9)	.285
	Dormitory	36(35.6)	65(64.4)	
	Board oneself	6(54.5)	5(45.5)	
Getting Sexual information	Internet	32(46.4)	37(53.6)	.164
	Friend	14(28.0)	36(72.0)	
	Brother/sister	1(100.0)	0(0)	
	Counseling center	7(41.2)	10(58.8)	
	Professor	1(100.0)	0(0)	
Graduated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46(43.0)	61(57.0)	.342
	Industrial high school	8(28.6)	20(71.4)	
	Vocational school	0(0)	2(100.0)	
	Etc	1(50.0)	1(50.0)	
Smoking	Smoker	8(66.7)	4(33.3)	.055
	Nonsmoker	47(37.9)	77(62.1)	
	Not anymore	0(0)	3(100.0)	
Allowed money (won)	Less 50.000	4(57.1)	3(42.9)	.756
	60.000–100.000	3(33.3)	6(66.7)	
	110.000–150.000	10(47.6)	11(52.4)	
	160.000–200.000	9(39.1)	14(60.9)	
	over 210.000	29(36.7)	50(63.3)	
Satisfaction Major	Positive	33(36.7)	57(63.3)	.541
	Negative	5(55.6)	4(44.4)	
	Middle	14(40.0)	21(60.0)	
	Not bad	3(60.0)	2(40.0)	
Sexual counseling	Friend	40(38.1)	65(61.9)	.530
	Brother/sister	3(33.3)	6(66.7)	
	Parents	9(47.4)	10(52.6)	
	Professor	0(0)	1(100.0)	
	Counseling center	3(75.0)	1(25.0)	
Born order	1st	25(39.1)	39(60.9)	.470
	Middle	7(58.3)	5(41.7)	
	The last	21(38.2)	34(61.8)	
	Only child	2(25.0)	6(75.0)	
Parent's intimacy	Positive	39(41.1)	56(58.9)	.469
	Middle	14(34.1)	27(65.9)	
	Bad	2(66.7)	1(33.3)	
Sexual education	Taken	44(36.4)	77(63.6)	.042*
	Not taken	11(61.1)	7(38.9)	

\*\*  $p < 0.01$ , \*  $p < 0.05$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표 3. 개인적 특성과 피임지식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v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139)

Variables	M	SD	1	2	3	4	5	6	7	8
Sexual education	1.13	.007	1.00	-.056	-.171*	.045	.061	.121	.151	-.190**
Smoking	1.94	.323		1.00	.136	-.089	-.042	.132	-.021	-.238**
Allowed money	4.14	1.193			1.00	.154	-.030	-.110	-.062	.161
Hosing	1.88	.512				1.00	.006	.093	-.134	.069
Religion	3.08	1.160					1.00	.116	.085	.077
Parents' intimacy	1.34	.519						1.00	-.219**	-.007
Satisfaction major	1.68	.972							1.00	-.114
Knowledge contraceptive	7.71	3.144								1.00

\*\* $p < 0.01$ , \* $p < 0.05$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표 4.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o knowledge of contracep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SE	$\beta$	t(p)	SE	$\beta$	t(p)	SE	$\beta$	t(p)	
Constant	.165	-	6.644	.232	-	6.421	.278	-	4.629	p=.000 Tolerance = .969 .949 .966 VIF = 1.032 1.054 1.035 Durbin-Watson = 2.281
Sex	.092	.260	3.157 (0.002)**	.093	.239	2.875 (0.02)*	.093	.237	2.829 (0.02)*	
Sexual education				.121	-.131	-1.574	.123	-.125	-1.480	
Allowed Money							.034	.037	.439	
Statistics	R <sup>2</sup> =.068, Modified R <sup>2</sup> =.061, F=9.970, p=.002			R <sup>2</sup> =.071, Modified R <sup>2</sup> =.071, F=2.477, p=.118			R <sup>2</sup> =.101, Modified R <sup>2</sup> =.065, F=.193, p=.662, Durbin-Watson =1.961			

\* $p < 0.05$